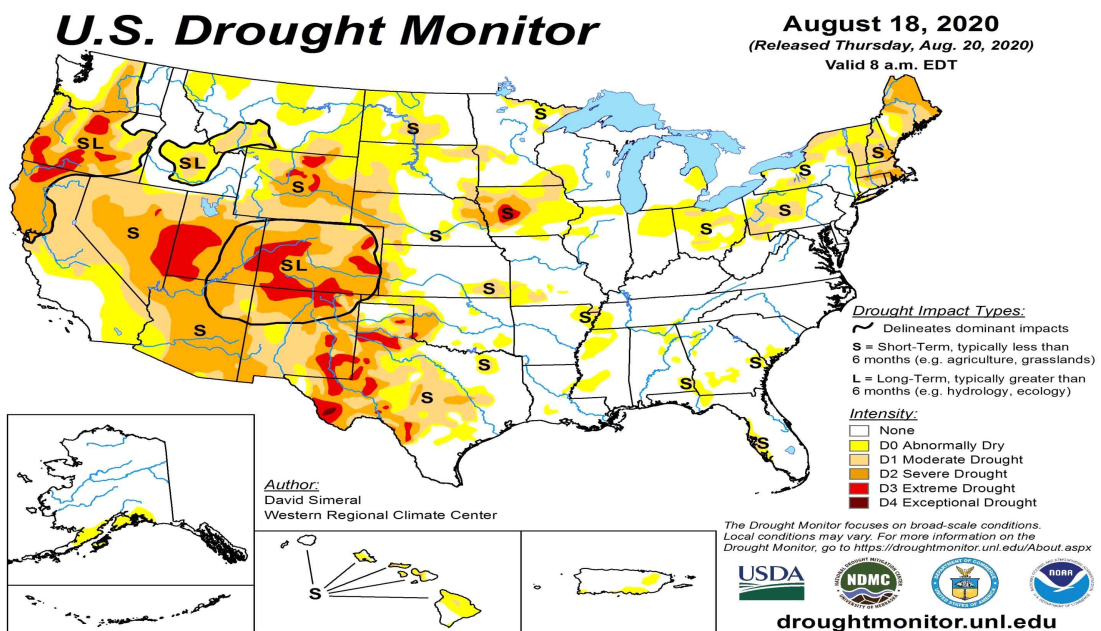


8월 25일 USDA 기후작황보고서(Volume 107, No. 34)

□ 미국 기후 현황(8/16~8/22)

서부의 역사적인 더위와 대체로 건조한 환경 때문에, 특히 8월 16~19일에 캘리포니아 일부에서 번개로 불이 발생한 이후에, 산불이 일어났고 대기질이 악화되었다. 캘리포니아에서 주말까지 24회가 넘는 산불이 1백만 에이커 이상의 초목을 불태웠다. 캘리포니아 역사상 두 번째와 세 번째로 큰 화재로 기록된 가장 큰 두 개의 산불(LNU와 SCU 번개 복합 화재)이 각각 약 34만 8,000 및 34만 4,000 에이커를 태웠다. 서부의 다른 지역들에서는 수십 건의 산불이 발생했는데 이 중에 현대 역사상 콜로라도에서 두 번째로 큰 화재가 눈에 띄었다. 8월 23일까지 콜로라도 주 '그랜드 정션'에서 북쪽으로 거의 12만 7,000 에이커를 태운 '파인 굴취 화재'는 면적 기준으로 볼 때 2002년 13만 7,760 에이커를 태운 헤이만 화재 다음으로 컸다. 한편 서부의 이글거리는 더위(평년보다 5~10° F 높은 기온)가 - 특히 가뭄 피해 지역에서 - 방목지, 목초지 및 미성숙 여름 작물들에게 계속해서 상당한 스트레스를 가했다. '미국 가뭄 모니터'에 따르면 8월 18일 현재, 서부 지역의 11개 주 중에서 거의 3분의 2(65.6%)가 가뭄을 겪고 있었다고 한다. 늦여름 더위가 평원 북부를 가로질러 동쪽으로 확대되었지만 중남부, 중서부 아래쪽 및 평원 남동부는 평년보다 낮은 기온으로 뒤떨었다. 사실, 오자크 고원과 주변 지역의 평균 기온은 평년보다 5° F 정도 낮았다. 평원과 중서부 전역에 점점이 내린 소나기들이 야외 작업과 작물 발달에 도움이 되었지만 아이오와 일부를 포함해서 가뭄 피해를 입은 지역들에서는 계속해서 스트레스가 되었다. 그 밖에 멕시코 만 서부 지역의 생산자들은 열대성 기상활동에 앞서서 벼를 수확했으며, 지역적인 폭우가 남동부를 흠뻑 적셨다.



□ 농업 현황 요약(8/17~8/23)

미국 서부 전역에 평년보다 더 더운 날씨가 계속되었다. 남서부의 대부분, 특히 캘리포니아와 네바다에서는 기온이 평년보다 9° F 이상 높았다. 태평양 북서부, 평원 북부 및 로키산맥 북부에 있는 포켓들은 평년보다 9° F 이상의 기온을 기록했다. 대조적으로 미국 중부와 동부 대부분은 평년 이하의 기온을 보였다. 평원 남부 대부분, 미시시피 계곡 및 오하이오 계곡은 평년보다 3° F 이상 낮은 기온을 기록했다. 나라 대부분이 평년보다 더 건조했지만 남동부 대부분에서 평년 이상의 강우량을 기록했다. 열대 폭풍 마르코가 주말에 접근하면서 플로리다의 팬핸들 일부는 4인치가 넘는 강우량을 기록했다.

□ 세계 기후 현황(8/16~8/22)

■ 유럽: 따뜻하지만 젖은 날씨가 겨울 작물 파종에 필요한 토양 수분을 상승시켜주었지만 프랑스의 종실비대 및 성숙 중인 여름 작물들에게는 대체로 너무 늦었다. 강력한 폭풍 전선 하나가 아일랜드, 영국 및 노르웨이에 폭우 (25~75 mm)와 돌풍을 일으켜서 야외 작업을 늦추고 저지대에 홍수를 일으켰다. 더 남쪽으로 - 최남단을 제외하고 - 유럽의 나머지 대부분에는 광범위한 소나기들 (3~50 mm)이 내려서 겨울 유채와 밀 파종을 위한 적당하거나 풍부한 수분 공급을 유지해주었다. 지난 주에 내린 강우가 대륙의 남동부 지역에서 30일 총강우량을 지역적으로 평년의 200 % 이상으로 밀어올렸으며, 영국 전역과 독일 중부 및 남부에서 동쪽으로 발칸 반도까지는 강우 총량이 평년에 가까웠다. 이번 주의 소나기에도 불구하고 프랑스의 60일 강우량은 평년의 50% 이하 (지역적으로는 25% 미만)를 기록했으며, 여름 작물들은 이번 여름의 가뭄과 극심한 열의 유입으로 악영향을 받았다. 더욱이 인공위성에서 얻는 식생 건강 데이터는 전국 대부분에서 아주 열악한 상태를 나타내어 작년 같은 시기와 비교해서 크게 악화되었다. 위와 비슷하게, 발칸 반도 나머지에 대한 여름 작물의 전망은 여전히 유망했지만, 불가리아 북동부와 루마니아의 인접한 경작지에서 국지적이지만 뚜렷했던 건조가 옥수수, 대두 및 해바라기의 수확 잠재력을 낮추었다. 습한 기상 패턴에도 불구하고 지중해 인근의 조건은 건조하여 여름 작물의 건조와 수확을 촉진했다. 이번 주의 비가 늦게 발달 중인 여름 작물에 대한 잠재 스트레스를 완화하기는 했지만, 유럽 대부분에서 늦여름 더위 (평년의 2~6° C 이상)가 옥수수, 대두 및 해바라기의 성숙을 가속화했다.

■ 구소련(서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서부는 날씨가 대체로 건조하여 다소 늦게 발달하고 있는 여름 작물들에 대한 수확 전망 수준을 계속 낮추었다. 가볍거나 중간 정도의 소나기 (1~20 mm, 북쪽은 지역적으로 더 많)가 우크라이나 동부와 북부에서 벨라루스와 러시아 북서부까지 종실비대 중인 옥수수와 해바라기에게 수분을 공급해주었다. 하지만, 그 지역의 나머지 주요 여름 작물 지대에는 건조한 날씨가 만연하여, 우크라이나 중부 지역은 단기 가뭄 (60일 강우량이 평년의 50% 미만)이 종실 비대 중인 옥수수, 대두 및 해바라기에게 악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더욱이, 우크라이나에서는 기온이 평년보다 최대 4° C 높아서 작물의 물 수요량이 올라갔고 단기 가뭄의 영향이 악화되었다. 러시아 서부 지역의 상태는 매우 가변적이었고, 북카프카즈 지구 북부에서 중앙 지구 남동부까지는 지난 60일간 비슷한 건조 상태를 유지했다. 대조적으로, 중앙 및 불가 구역의 서부 및 북부 지역 뿐만 아니라 남쪽 구역의 서부 전역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평년보다 높은 60일 강우량이 여름 작물들에게 도움이 되었다. 위성 영상에 따르면 몰도바에서 동쪽으로 우크라이나의 중부 및 남부까지 불량한 식생 건강 지역이 확장되고 있었던 반면 러시아는 북쪽은 양호했지만 북카프카즈 구역은 극히 불량한 등 다양한 상



태를 보여주었다.

■ 동아시아: 중국 동부에 내린 광범위한 소나기가 생식기 여름 작물들을 위한 토양 수분을 유지 또는 상승시켰다. 북동부의 강우량은 흑룡강 성과 길림 성 서부 대부분의 10 mm 미만에서 요녕성 일부의 100 mm 이상까지 다양했다. 특히, 요녕성은 최근 습한 날씨가 60일 강우 부족을 해소하여 대두의 전망을 개선했으나, 이미 종실비대 중인 옥수수에게는 너무 늦어서 큰 유익을 주기는 어려울 것 같다. 더 남쪽으로 또 한 차례의 비 (10-50 mm 또는 그 이상)가 온 뒤로 북중국의 여름 작물들에 대해서 양호한 수분 조건이 유지되었으며, 다소 더 건조한 날씨로 양쯔 계곡의 과도하게 습한 조건이 완화되었다. 한편 주 중반에 열대 저기압 (히고스)이 중국 최남단에 상륙하여 보통의 또는 심한 가뭄을 겪고 있는 지역에 아주 필요했던 강우 (50-150 mm)를 내려주었다. 그밖에, 북한과 남한 국경지역에 폭우 (50-100 mm 이상)가 계속되어 늦철 토양 수분을 양호하게 유지했으나 지역적으로 홍수를 일으켰다.

■ 호주: 호주 남부와 서부의 일부에 비가 비교적 가볍게 내리기는 했지만, 대부분의 주요 겨울 작물 생산 지역들에는 많은 양의 비 (10-30 mm)가 내려서 서호주, 남호주 및 빅토리아의 밀, 보리 및 캐놀라 전망이 더욱 개선되었다. 마찬가지로 뉴 사우스 웨일즈의 중부와 남부에 광범위한 소나기 (10-30 mm)가 영양기 겨울 곡류와 유지작물들에 대한 수확 전망을 양호한 또는 우수한 수준으로 유지했다. 대조적으로, 뉴 사우스 웨일즈와 퀸즐랜드 남부는 대체로 건조한 날씨가 퍼져서 밀과 기타 겨울 작물들에 대한 수분 공급을 감소시켰다. 이 두 지역은 현재는 표토 수분이 작물 성장을 촉진하는데 적당한 수준이지만 작물들이 생식기를 지나고 있어서 발달 속도를 유지하면서 그 지역이 심각한 장기 가뭄에서 계속 회복하려면 후속적인 비가 필요할 것이다. 밀 벨트 전체의 평균 기온은 평년 수준과 가깝거나 다소 낮은 수준 (평년보다 최대 1° C 낮음) 이었고 스트레스성 열이나 과도하게 추운 날씨는 관측되지 않았다.

■ 아르헨티나: 국가의 주요 재배 지역은 춥고 건조한 날씨가 지배하여 겨울 곡류와 보리의 발달을 억제했다. 대부분의 지역은 완전히 건조했고 지역 전체에서 주간 평균 기온은 평년보다 2-4° C 낮았다. 남서부와 일부 북부 농업 지역에서는 밤 최저 기온이 -5° C 이하로 떨어졌다. 계절을 벗어난 추위는 장기 건조와 합쳐지면서 건조한 서부 지역에서 활착이 불량했던 겨울 곡류에게 추가적인 스트레스를 가한 동시에 일찍 심은 여름 작물들의 발아도 늦추고 있었다. 아르헨티나 정부에 따르면 8월 20일 현재 해바라기는 11% 파종되었다; 북부 생산 지역에서는 야외 작업이 진행되었는데 이곳의 평균 기온은 평년보다 4° C 낮았다. 게다가 코르도바에서는 밀이 대부분 분얼 중이고 추운 날씨에 덜 취약하다고 알려졌지만 밀이 건조와 혹독한 동결로 인한 스트레스 징후를 보이고 있었고 좀더 자란 밭들 가운데 일부는 피해를 받았을 수 있다.

■ 브라질: 소나기가 남부 농장 지역의 밀에 유익을 주었지만 결빙은 생식기 작물에 잠재 피해를 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를 일으켰다. 총 10-50 mm의 강우가 파라나와 파라과이 동부에 집중되었고, 북부 리우 그란데 도 술을 포함한 다른 주의 인근 지역에는 더 가벼운 소나기

(10~25 mm)가 내렸다. 파라나의 강우량은 1월 이후 가장 많은 양을 기록하여 수분 보유량을 보충하는데 크게 도움이 되었다. 리우 그란데 도 술과 파라나의 남부 농장 지역에서는 주 후반에 동결이 기록되어 지역 밀 피해에 대한 일부 우려를 불러 일으켰다. 파라나 정부에 따르면 밀은 63%가 8월 17일 현재 생식기 또는 종실비대기 중에 있었다; 하지만 서리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 남부 지역은 작물의 발달이 훨씬 뒤쳐졌다고 한다. 늦게 밀을 심은 리우 그란데 두술에서는 8월 20일 현재 22%가 생식기에 도달했다. 그밖에 브라질의 중앙 및 북동부 내륙 지역에서는 여름의 더위와 건조 덕분에 빠른 건조와 2차 여름 작물의 수확이 촉진되었다. 마토 그로소 정부에 따르면 8월 21일 현재 면화는 89% 수확되었다. 한편 동부 해안을 따라 소나기 (불과 몇 지역에서 10 mm 이상)가 드물게 내렸다.